

안전의 선진화에 앞장 -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주) 전주공장』

조태열 | 경영기획부 차장

이번 신년호는 협회 전주지부의 소개를 받아 안전의 선진화와 환경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Pan Asia Paper Korea Co.)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안전 초일류 기업'의 안전시스템 현황은 어떠한지, 방화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회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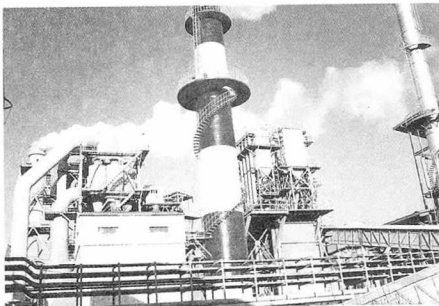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주) 전주공장은 1998년 12월 한국의 한솔제지와 세계 최대 신문용지 업체인 캐나다의 아비티비 컨솔리데이티드(Abitibi consolidated), 유럽지역 제1의 신문용지회사인 노르스케스코그(Norsak Skog)가 조인트 벤처회사인 팝코(PAPCO)를 설립, 운영하던 중 2001년 8월 한솔제지의 지분 33%를 나머지 두 회사에 전량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양 사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팬아시아는 중국 상해, 태국 심부리, 한국 전주와 청원에서 생산을 담

당하고 있다.

팬아시아 전주공장은 모든 업무에서 안전제일의 경영풍토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 임직원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전주공장은 안전 초일류 기업답게 재해율 0.3% 이하를 달성하고, 화재사고 Zero화, 협력회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매진하고 있다.

■ 일반사항

전주공장은 서울에서 240km 떨어진 전주시 외곽 공단지역에 위치하며 약 55만㎡의 부지에 자리잡고 800여 명의 사원들이 매일 3교대로 일하고 있다. 건물이 차지하는 넓이는 약 12만9천㎡,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설비들을 자랑한다. 팬아시아(싱가포르) 지주회사의 4개 생산기지의 총 생산량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연간 142만5천톤 생산하는데,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



체 시장규모의 약 30%에 해당한다. 전주공장은 팬 아시아 페이퍼 그룹의 핵심 제지공장으로 연간 100만톤의 종이를 생산하며, 그중 83.7%는 신문용지이고 16.3%는 증질지이다.

■ 방화활동

전주공장은 공장면적이 크기 때문에 몇 명의 방화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모든 방화활동을 연간 '소방업무 MAP'의 계획에 따라 부서별 소방훈련과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사내 교육계획 수립, 사내·외 교육계획 수립, 소방시설 개선,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 정밀기능 점검, 소방용 자재 관리, 소방훈련, Risk Surveyor 실시, 공단 소방협의회 등을 참가하여 정보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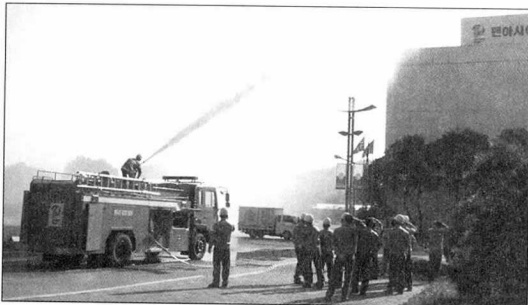
또한 만일을 대비한 비상사태 조직, 검사 프로그램, 화기취급 허가제도, 흡연지침, 외부업체 관리와



팀별소방훈련



합동소방훈련



방수총방사



미분무수 장치에 의한 유류화재 진압

같은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매월 평가하고 그에 따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화재소방설비를 수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은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며, 올바른 공정과 효용설비를 위한 예방 유지 프로그램도 잘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 팀별 비상사태훈련 실시횟수가 583회, 참여인원 6천5백 여명으로 전직원이 8회 이상 참여하였다.

■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 여부

늘어나고 있는 자산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팬아시아의 최고 임원들은 위험관리를 비즈니스 플랜의 전략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점검을 외국 우수기관과 화보협회 등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에서 권고사항들

| 탐방 |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주) 전주공장

을 즉시 개선하여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 계획도 세워 소방설비 설치와 보수 교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 공장건물로서 방화관리상 동일업종 타 건물과의 비교

전국의 제조업체 중 펄프지류를 생산하는 동종업계에서 전주공장의 재해율(재해건수/근로자수×1,000)을 살펴보면 1999년 0.11%, 2001년 0.12%에서 2002년 현재 “0%”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재해율도 “0%”에 도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아시아 페이퍼 그룹에서 월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공장이 안전율과 질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 건물의 방화시설

현재 전주공장 건물들은 대부분 불연성 건축물이며, 증설 중인 건축물이나 앞으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동화창고와 일부 연결복도 내의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되고 있다.

전주공장 안전 모토는 소방법이나 타의에 의한 설비보다는 꼭 필요한 설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필요에 의해 한다는 것이다. 화재 발생시 결국 손해는 회사가 보기 때문이다.

공장 내의 소방 시스템은 스프링클러(3,927개), 옥내·외 소화전(446개), 화재감지기(3,276개), 가스계 소화설비 139개, 화재수신반 48개, 감지기 3,276개, 유도등 727개, 완강기(6개), 소화기(1513개), 고정식 폼 설비 등으로 소방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는 최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초기 소화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 노즐 소화전, 릴호스 소화전이 추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공장 내에는 2대의 소방차가 구비되어 있으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소방법규의 국제 기준화 필요성

안전관리에 종사한지 20년이 되었다는 박인규 과장은 전주공장이 국내 기업에서 외국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소방분야에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고 한다. 건물의 화재안전 분야에 있어서 국내법과 국외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회사 특성상 자진 소방설비를 계획하여도 “국내 소방법상 적용범위 외의 시설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면서, “국내 화재안전 기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재안전 기준과의 상이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규제 또는 허술한 안전기준 등으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관련 기관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